

韓·美 兩國 大學生의 性役割 正體感과 自尊心에 관한 比較文化研究

Sex Role Identity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정 옥 분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 **Ock Boon Chung**

<目 次>	
I. 問題의 提起	IV. 結果 및 論議
II. 關聯研究考察	V. 結論 및 提言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e first overall question had to do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more specifically, is androgyny or masculinity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variation in self-esteem? The second overall question had to do with the degree to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s a universal or a culturally specific phenomenon—more specifically,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the same i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The Bem Sex Role Inventory (BSRI) and the Coopersmith Self Esteem Inventory (SEI) were administered to 208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207 Korean college students, respectively, in introductory sociology classes. The BSRI and SEI are standardized for American subjects and written in English. Prior to administering these instruments to Korean subjects, they were transl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In order to fully explore the data,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measurement of the BSRI were used, and both factorial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found in the present stud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In the U.S. sample, masculine attributes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self-esteem. On the other hand, androgynous attribut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in the Korean sample. These findings also provide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That is, different cross-cultural patterns of relationship were found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providing some support for a culture-bound relationship.

These cross-cultural differenc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both Confucian values held by Koreans and Bakan's suggestion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gentic characteristics and modernization.

I. 問題의 提起

韓國社會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傳統的으로 男子는 男性的인 것이, 女子는 女性的인 것이 心理的으로 健全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이러한 전통적인 性役割 區分은 現代社會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人間의 潛在力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 障礙要因이 된다고 주장하는 學者들이 많다.

Block 등¹⁾은 여성적인 여자는 不安感(anxiety)이 높고, 自尊心(self-esteem)과 社會的 受容性(social acceptance)이 낮다고 하고, Mussen²⁾은 남성적인 남자는 청년기동안은 心理的 適應(psychological adjustment)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成人이 되었을 때 불안감이 높고, 神經過敏(neuroticism)을 보이고, 自己受容性(self-acceptance)이 낮다고 보고했다. 또한 Maccoby³⁾의 연구결과, 남성적인 남자와 여성적인 여자는 모두 知能(intelligence), 創意性(creativity), 空間知覺能力(spatial ability)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Sandra Bem 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것을 양성성이라고 한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많은 연구결과, 兩性性(androgyny)이 자존감⁴⁾, 자아실현⁵⁾(self-actualization), 사회적으로 바람직함⁶⁾(social desirability), 그리고 도덕성 발달⁷⁾(moral development)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Jones 등⁸⁾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個人의 적응력에 決定的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라고 밝히면서 Bem 등이 주장한 “양성성이 곧 적응성(androgyny equals adaptability)”이라는 가설을 부정하였다. Yager 와 Baker⁹⁾도 여성성과 관계 없이 남성성의 존재만이 個人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男性性

優越 効果(masculinity supremacy effect)”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효과의 배경은 남성적 특성이 미국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남성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性에 구별 없이 일상생활의 적응면에 있어서 有利한 입장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分野의 연구결과와 一관성이 없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다루고자 하는 問題는 個人의 적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양성성인지 아니면 남성성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本 論文의 또 하나의 연구문제는 比較文化研究(cross-cultural study)에 관련된 것이다. 文化가 性役割 社會化 過程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즉,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은 문화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 세 文化를 비교한 Mead¹⁰⁾의 유명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Parsons¹¹⁾가 정의한 전통적인 性역할 구분은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性類型行動과 個人의 適應力간의 關係도 文化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假說이 成立된다. 本 研究에서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文化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 두 文化를 선정할 이유는 이 두 文化가 東과 西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本 研究者가 이 두 文化에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性役割 正體感和 自尊心은 어떤 關係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個人의 자존감을 설명하는데 양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남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性역할 정체감과 자존감과의 관계는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된 현상인지,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다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性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문화에서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려는 데 있다.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자존감이 개인의 적응력의 중요한 決定要因이기 때문이다. Branden¹²⁾은 자존감은 人間의 基本欲求로서 이 욕구의 充足與否는 生死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한 個人의 心理的 適應度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Branden과 마찬가지로 Maslow¹³⁾도 개인의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서 자존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존감에 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自信感이 있고 자신을 價値있고 有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劣等感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否定的 感情은 精神疾患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I. 關聯研究考察

1. 傳統的 性役割 正體感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規定하는 性에 적합한 行動, 態度 및 價値를 習得하는 과정을 性役割 社會化라 하며 이 성역할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발달된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은 人間發達의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精神健康의 한 尺度가 되어 왔는데 즉,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性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는 일은 그 기초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同性의 父母에게 同一視 하려는 심리적인 과정에서 일어난다. Freud¹⁴⁾의 精神分析理論, Mischel¹⁵⁾의 社會學習理論, 그리고 Kohlberg¹⁶⁾의 認知發達理論이 性役割同一視(sex-role identification)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이론은 성역할동일시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見解를 달리하나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理想의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Hefner 등¹⁷⁾은 성역할사회화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인간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性別의 兩極概念 및 여성의 劣等性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남성성, 여성성을 양극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일찌기 1945년에 Jung¹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기 독립된 변수로 보고 성역할의 二元的 概念을 주장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特性이 어느 정도 共存한다고 하였다.

Bakan¹⁹⁾ 역시 모든 인간에게는 機能性(agency)과 親和性(communion)이 어느 정도 공존한다고 하면서 개인이나 사회가 存續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心理的 兩性性 概念이 연구되었는데, 여기에서 심리적 양성성이란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道具的(instrumental) 役割과 表現的(expressive) 역할을 모두 遂行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을 말한다. Maracek²⁰⁾은 현대사회는 심리적 양성성의 발달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양성적인 사람의 融通性和 適應性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兩性的 性役割 正體感

남성성, 여성성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對案으로서 Bem²¹⁾은 양성성으로의 사회화가 전통적인 성역할보다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Bem과 Lenney²²⁾는 양성적인 사람은 性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양성적인 사람이 性型화된 사람보다 남성적인 행동영역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행동영역에서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

Nevill²³⁾의 연구에서도 양성적인 사람이 自我實現感이 높고, 자신의 欲求와 感情에 민감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性型화된 사람보다 精神病理學的 症狀를 훨씬 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Nevill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양성적인 사람이 性型화된 사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推論이 가능해진다.

Block⁷⁾은 양성적인 사람의 道德性發達과 自我發達이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文化的으로 정의되어진性に 적합한 역할의 사회화는 심리적 성장의 촉매요소인 內省(introspection)과 自己評價(self-evaluation)를 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Williams²⁴⁾은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양성성과 정신건강을 연구하면서, 양성적인 여성은 정신질병의 증세를 덜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연구결과 양성성과 정신건강과는 正的인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양성적인 사람은 多次元的인 行動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남성적인 특성 및 여성적인 특성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적응을 더 잘한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3. 兩性성과 自尊感

Spence 등²⁵⁾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양성적인 사람의 자존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성적인 사람, 그 다음이 여성적인 사람의 順이며, 未分化된 사람의 자존감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양성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성격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man과 Morse²⁶⁾의 연구 또한 Spence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데, 양성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세 집단의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自尊感, 自己受容性, 他人受容性을 나타내었다.

O'Conner 등²⁷⁾은 Spence 등의 연구결과를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Spence 등과 同一한 結果를 얻었다.

그 외 Puglisi와 Jackson²⁸⁾, Allen-Kee²⁹⁾, Orlofsky³⁰⁾의 연구에서도 양성적인 사람의 자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iff과 Koopman³¹⁾은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 자아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적인 여성이 남성적인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였으나 자존감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그들은 미국사회에서 높게 평가 받는 남성성의 동일시가 여성의 개인적 가치와 자존감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여성성의 동

일시가 수반되지 않은 남성적 특성은 개인적 성숙이나 자아발달에는 저해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석하였다. 文化가 규정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남성적인 여성의 자아발달과 성숙이 장애를 받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위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양성성과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 즉, 양성적인 사람이 적응을 가장 잘 한다는 Bem의 이론을 지지한다.

4. 男性성과 自尊感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양성성이 가장 적응성이 높은 性役割類型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성이 자존감의 주요요인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實證的인 연구도 있다. Jones 등은 일련의 연구에서 남성적인 사람이性に 관계 없이 적응력이 가장 높고, 융통성이 있고, 비판습적이라고 하면서, 남성성이 심리적 적응과 가장 관련이 크다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개인의 적응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양성성이 아니고 남성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Harrington과 Andersen³²⁾은 創意性和 兩性성의 연구에서 양성적인 사람과 남성적인 사람이 共有하는 特性을 묘사하기 위해 “男性性 優越(masculinity advantage)”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양성적인 사람과 남성적인 사람의 創意的인 自我概念은 남성성 우월 때문이고, 양성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女性性 不利益(femininity disadvantage)” 때문에 남성적인 사람보다 다소 낮은 창의적 자아개념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Yager와 Baker³³⁾은 양성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남성적 특성이 자존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이고 이것은 또한 다른 적응력 있고 건장한 행동과도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人生에 있어서 좋은 일(good things)을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男性性 優越의 効果”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결과는 여성적 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현대사

회와 같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남성적 특성 뿐만 아니라 여성적 특성 또한 強調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ill과 Cunningham⁸³⁾, Whitley와 Sweeney⁸⁴⁾, Kelley와 Worell⁸⁵⁾, 그리고 Erdwins 등⁸⁶⁾의 연구 또한 남성성과 자존감의 正的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성역할과 자존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양성성이 가장 적응력 있는 性役割類型이라고 보고한 반면, 남성성이 개인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고 하는 연구 또한 상당수 있어 이 분야의 연구결과와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성성인지 또는 남성성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미국 남자대학생 103명, 여자대학생 105명, 그리고, 한국 남자대학생 102명, 여자대학생 10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양국간의 標本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연령, 전공 및 대학의 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상 연령의 범위는 17세에서 29세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세이다. 전공분야가 개인의 양성성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한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을 표집하였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에 使用된 道具는 두 가지로서, 性役割 正體感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m의 性役割 測定道具(Bem Sex Role Inventory)를, 自尊感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opersmith의 自尊感 測定道具(Coopersmith Self 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1) Bem의 性役割 測定道具(Bem Sex Role Inventory: BSRI)

종래의 남성성-여성성 척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비평을 받아 왔는데 주된 비평 중의 하나는 종래의 남성성-여성성 척도들은 남성성-여성성

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남성성, 여성성이 자기 兩極을 대표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여성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單一次元線上에서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람은 불행히도 성역할 정체감이 불분명하다는 판정을 받아 왔다. BSRI는 종래의 남성성-여성성 척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기 독립된 변수로 보고, 남성성, 여성성을 따로 측정할 수 있도록 남성성척도와 여성성척도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측정도구에 의하면 남성적인 사람이 동시에 여성적일 수도 있다.

BSRI는 7點 Likert 식 척도로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는가에 따라 “결코 나의 성격과 같지 않다”가 1점,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나의 성격과 같다”가 7점을 받는다. 本 研究에서는 BSRI의 여러가지 채점방법(scoring method)을 검토한 결과 中央値半分法(median-split method)을 채택하였다. 중앙치 반분법은 남성성척도와 여성성척도의 중앙치 점수를 자기 계산해서 피험자를 네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즉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적집단에,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인데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집단에,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적 집단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 집단에 자기 배당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方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채점법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위의 중앙치반분법이 피험자를 집단으로 나눔으로써 피험자의 남성성, 여성성 실제점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information)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 피험자를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양성성 점수를 수량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험단계로 남성성 여성성 점수에서 양성성 점수를 파생시키는 하나의 公式을 만들어 보았다. 이 공식은 양성성의 定義, 즉,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높으면서 또한 이들의 어느 한 쪽이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공식은 $A = (6 - |F - M|)$

(F+M)인데

여기에서 A=양성성 점수,

M=남성성 점수,

F=여성성 점수,

6=남성성과 여성성 점수의 차이의 최대값이다.

BSRI의 要因分析 결과 몇 연구자들이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에서 자기 몇개의 문항씩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Bem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hort Form BSRI를 만들었다. Short Form의 문항 수는 Original BSRI의 절반으로 남성성 척도 10문항, 여성성 척도 10문항, 그리고 채점을 하지 않는 중성문항(neutral item)이 10문항 들어 있다. 이 중성문항의 목적은 피험자로 하여금 이 척도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Short Form을 사용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에 의해 산출된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가 .84~.90이고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85~.91이다³⁷⁾. BSRI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38,39,40,41)} 구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2) Coopersmith의 自尊心 測定道具(Coopersmith Self Esteem Inventory: SEI)

Coopersmith에 의해 제작된 SEI는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主觀的인 評定을 알아 보려는 측정도구이다. SEI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6세 이상을 위한 成人用(Adult Form) SEI를 채택하여 다음 몇가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반응범주가 원래는 “나와 비슷하다”와 “나와 비슷하지 않다”로 2점 척도이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반응분산(response variance)을 높이기 위해 5점 척도로 바꾸어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에는 1점을, “나와 아주 많이 비슷하다”에는 5점을 주었다. 모두 25문항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다. 둘째, 25문항 중 세 문항이 남성성 척도의 문항과 비슷하고, 한 문항이 문화적 편견을 보여 이 세 문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피험자들에게는 25문항

을 다 응답하게 하여 자료분석에서만 이 세 문항을 첨가 또는 삭제해서 두가지로 처리하였다.

SEI의 신뢰도를 보면 Kuder-Richardson Formula 20에 의한 내적 합치도는 .87에서 .92로 보고되었고, 반분 신뢰도(split half reliability)는 .87~.90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88~.93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다⁴²⁾. Congruent Validity를 통해 구인 타당도가 구해졌으며⁴³⁾, 많은 연구자들에^{44~46)} 의해 예언 타당도가 밝혀졌다.

3) 한국판 BSRI와 SEI

한국 피험자를 위해서는 BSRI와 SEI를 우리말로 옮겼는데 보다 바람직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법을 병합해서 썼다. 첫째, 연구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이중 언어구사자들이 한 위원회(Committee)를 구성하여 논의를 통해서 각 문항을 번역했다. 그 다음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한 미국인이 우리말로 번역된 문장을 다시 영어로 옮겼다. 이것을 원문과 비교해서 두 문장간에 차이가 있을 때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 언어로 된 이 도구들이 서로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있는 한국학생 32명에게 영문척도와 국문척도를 2~3일 간격으로 실시해서 신뢰도를 재어 보았다. 그 결과 BSRI의 남성성 척도는 신뢰도 계수가 .87, 여성성 척도는 .85, 그리고 SEI는 .9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피험자가 한국말로 된 도구를 이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전검사(pretest)를 시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연구에 그대로 쓰기로 결정하였다.

3. 資料蒐集 및 分析方法

1983년 봄 학기에 미국 M 대학의 사회학개론 강사에게 양해를 구해 몇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시행(administration)순서로 인해 야기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총 피험자 수의 반은 BSRI를 먼저 응답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SEI를 먼저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의 Y 대학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절차가 적용되었는데 단지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을 할 수가 없어 동료가 대신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 Median scores of the Masculinity and the Femininity Scales of the BSRI for the U.S. and the Korean Samples

	Masculinity Scale	Femininity Scale
U.S. Sample(N=208)	4.88	5.56
Korean Sample(N=207)	3.90	4.90

Table 2. Mean Self-Esteem by Sex-Role Identity and Gender for the U.S. and Korean Samples

	Androgynous		Masculine		Feminine		Undifferentiated	
	N	Mean	N	Mean	N	Mean	N	Mean
U.S.								
Male	26	95.46	29	94.41	17	93.12	31	85.71
Female	32	90.38	10	93.40	30	82.50	33	80.48
Korean								
Male	36	86.61	25	79.90	21	78.72	20	73.30
Female	19	82.47	21	86.19	23	78.00	42	74.07

Table 3. Summary of Two-Way Analysis of Variance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Gender on Self-Esteem: U.S. Sample

Source	DF	SS	MS	F	P
Sex-role identity(A)	3	3771.85	1257.28	7.45	.001
Gender(B)	1	1603.80	1603.80	9.51	.002
A×B	3	434.62	144.88	.86	.463
Residual	200	33737.27	168.69		
Total	207	39547.54			

자료처리는 우선 한국, 미국 자료를 따로따로 분석했는데, 4(성역할 정체감)×2(성별) 이원변량 분석에 의해 그 결과를 두 문화간에 비교해 보았다. 또한 문화와 성역할 정체감 간에 어떤 相互作用效果가 있나를 보기 위해서 2(문화)×4(성역할 정체감)×2(성별) 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變量分析에서 F값이 유의하게 나왔을 때 어느 성역할 정체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Newman-Keuls 重多比較檢證(multiple comparison tests)을 하였고,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α level)은 .05로 정했다. 성역할정체감을 집단으로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앞서 언급한 공식에 의해 얻어진 양성성 점 수가 同間尺度(interval scale) 자료라는

점에서 重多回歸分析을 사용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Bem Sex Role Inventory 를 사용하였는데, 미국과 한국 표본의 남성성, 여성성 중앙치 점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Coopersmith Self Esteem Inventory 에 의해 측정된 자존감의 평균 점수는 <표 2>에 각 집단별로 제시되었다.

1. 美國大學生의 性役割 正體感과 自尊心

<표 3>에 의하면 성역할 정체감의 네 집단간에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4. Pairwise Comparisons of Means of Self-Esteem by Sex-Role Identity Typology: U.S. Sample

Pairwise Comparisons	q Value	
	Male	Female
Androgynous and Masculine	.42	.91
Androgynous and Feminine	.82	3.38*
Androgynous and Undifferentiated	3.99*	4.34*
Masculine and Feminine	.46	3.45*
Masculine and Undifferentiated	3.67*	3.90*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2.67	.87

* $p < .05$

CV: 4 spans(3.70) 3 spans(3.37) 2 spans(2.82)

남녀별로 따로따로 重多比較檢證을 하였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집단에서는 남성적인 남자와, 양성적인 남자가 미분화집단의 남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성적 집단이든, 남성적 집단이든 어느 쪽도 여성적 집단과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약간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선행연구의 결과는 여성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상이한 결과에 대해 다음 몇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선행연구들의 불충분한 통계처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자료분석을 주의깊게 검토한 결과 몇 연구들이 변량분석에서 유의있는 결과를 얻은 후, 事後檢證(post hoc test)을 거치지 않고 단지 자존감의 평균만을 가지고 어느 집단이 어느 집단보다 자존감이 더 높다는 등으로 보고를 하였다.

둘째는 Familywise Type I Error에 관한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F값이 유의있게 나온 다음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하기는 했으나, Familywise Type I Error가 통제된 중다비교검증을 하지 않고 t검증을 하였다. 네 집단 중 두 집단씩 뽑아 t검증을 하게 되면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모두 여섯번의 검증을 해야 하는데 같은 피험자에게서 얻어진 같은 자료를 가지고 t검증을 여러번 하게 되면 Type I Error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간에 실제로 차이가 없을 때 이 t검증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Table 5. The Pearson Correlations of Self-Esteem with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Culture	Masculinity	Femininity	Androgyny
U.S.	.45	.02	.33
Korean	.44	.31	.38

Table 6. Unique Contributions of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to Self-Esteem for the U.S. and Korean Samples

	Part r^2	F	
U.S.			
Masculinity	.0778	20.08	Sig.
Femininity	.0026	.68	N.S.
Androgyny	.0030	.79	N.S.
Korean			
Masculinity	.0531	14.04	S g.
Femininity	.0361	9.54	Sig.
Androgyny	.0010	.25	N.S.

세번째 가능한 설명으로는 SEI의 평정척도상의 문제인데, 원래 이것은 2점 척도이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Short Form BSRI가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 Short Form은 Original Form을 단지 짧게 했다는 것보다는 개선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데

Original Scale에 들어 있던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적 특성들이 다 삭제되어 Short Form에서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모두 바람직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Short Form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여성적 특성도 남성적 특성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적인 남자집단이 남성적인 집단, 그리고 양성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여자집단에서는 보다 뚜렷한 결과가 나왔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 양성적 집단과 미분화집단, 남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 그리고 남성적 집단과 미분화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성적인 여성과 남성적인 여성은 여성적인 여성이나 미분화 여성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매우 비슷하다. 위와같이性に 따라 그 類型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理由를 다음 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여성에게 있어서 성역할정체감 집단간의 차이가 남성보다 더 뚜렷한 것이 아닌가. 둘째, BSRI Short Form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합한 검사일 가능성이 있고, 셋째, Short Form에 나타난 여성적 특성이 여성에게보다 남성에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二元變量分析 결과는(Table 3 참조) 또한 남녀간에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하다. 자존감에 관한 性差를 설명하기 위해 몇가지 理論이 제기되었는데 Tarvis와 Offir⁴⁷⁾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차이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남자는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여자는 의존심을 조장하고, 자신감을 억제하는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Sappenfield와 Harris⁴⁸⁾ 또한 여성들은 의존심을 조장하고, 지적발달이나 자신감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Maccoby와 Jacklin⁴⁹⁾은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과감히 드러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남자집단이든, 여자집단이든, 성역할 정체감을 집단으로 나누어서 변량분석을 한 결과 어느 쪽도 이 논문에서 제기된 첫번째 문제, 즉, 개인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양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남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모두가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單純相關分析(simple correlational analysis)을 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성과 양성성이 모두 자존감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각각의 개별적인 기여도를 보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성만이 자존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豫言變數(predictor)인 것이 밝혀졌다. 단순상관 분석에서는 양성성이 자존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양성성의 자존감에 대한 개별적인 기여도가 의의가 없는 이유는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양성성과 자존감간에 나타난 正的인 상관관계는 이 양성성 속의 남성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미국 대학생의 자존감은 남성성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Jones 등이 주장한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성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SEI의 몇 문항을 삭제하고 분석한 결과 사후검증에서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단지 양성적 집단과 미분화집단간에만 의의있는 차이가 나왔다. 이것은SEI에서 남성성과 상관이 높은 몇 문항을 삭제한 결과로, 남성적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과도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는 Original SEI결과와 거의 비슷하나 남성성과 자존감의 상관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성적 특성과 상관이 높은 몇 문항을

Table 7. Pairwise Comparisons of Means of Modified Self-Esteem by Sex-Role Identity Typology: U.S. Sample

Pairwise Comparisons	q Value	
	Male	Female
Androgynous and Masculine	1.37	.55
Androgynous and Feminine	.53	2.57
Androgynous and Undifferentiated	4.00*	3.65*
Masculine and Feminine	.67	2.34
Masculine and Undifferentiated	2.68	3.07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2.97	1.00

* $p < .05$

CV: 4 spans(3.70) 3 spans(3.37) 2 spans(2.82)

Table 8. Summary of Two-Way Analysis of Variance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Gender on Self-Esteem: Korean Sample

Source	DF	SS	MS	F	P
Sex-role identity(A)	3	3934.54	1311.51	11.02	.001
Gender(B)	1	11.27	11.27	.09	.752
A×B	3	886.45	295.48	2.48	.062
Residual	199	23674.35	118.97	--	--
Total	206	28506.61			

Table 9. Pairwise Comparisons of Means of Self-Esteem by Sex-Role Identity Typology: Korean Sample

Pairwise Comparisons	q Value	
	Male	Female
Androgynous and Masculine	3.34*	1.52
Androgynous and Feminine	3.72*	1.87
Androgynous and Undifferentiated	6.19*	3.94*
Masculine and Feminine	.52	3.52*
Masculine and Undifferentiated	2.85	5.88*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2.25	1.96

* $p < .05$

CV: 4 spans(3.70) 3 spans(3.37) 2 spans(2.82)

삭제했을 때의 결과가 삭제하지 않았을 때와 상이한 것으로 미루어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SEI를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 도구가 자존감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에 비해 남성성-여성성 척도와 중첩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존감과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에 중첩되는 문항이 없는 그러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2. 韓國大學生의 性役割 正體感과 自尊感

二元變量分析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성역할 정체감의 主효과가 의의있게 나왔으므로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Newman-Keuls 重多比較檢證을 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집단에서는 양성적인 남자가 다른 세 집단의 남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em의 가설, 즉, 양성성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소 뜻밖의 것인데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男性優位の 文化로서, 남성적 역할에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남성적인 남자가 자존감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BSRI의 間項을 살펴봄으로써 이 결과를 해석해 보았다. 이 Short Form에 포함된 대부분의 여성적 문항은 儒敎의 價値觀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강경한”, “지배적인”, “공격적인” 등의 남성적 특성은 한국사회에서는 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성 점수는 약간 낮아지고 여성성 점수가 좀 올라가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양성성이다. 그래서 유교적 倫理를 信奉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양성성이 자존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한국문화에서 정의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어찌면 미국문화의 그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결과로 이 척도에 나타난 것이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성-여성성의 특성을 쥬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쥬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여자집단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적인 여자와 남성적인 여자가 미분화집단의 여자보다 자존감이 높고, 남성적인 여자는 여성적인 여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 여자대학생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역할 유형이 뚜렷해서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지 않은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따른 여성보다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한 미국 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남성적 특성이 더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고 따라서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矛盾的인 것은 그러면 이것이 왜 한국남자들에게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한국 여자의 대학 입학율이 남자보다 훨씬 떨어진다. 즉,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여러가지 면, 예를 들면, 지능,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보다 선택된 사람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자존감, 남성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설명으로는 한국 피험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남녀공학의 대학생인데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자대학생은 여자대학에 다니는 여자대학생보다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서 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성적 역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해석은 또한 한국 남녀대학생에서 나타난 남녀간의 자존감에서 차이가 없는 결과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다.

한국 표본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존감을 설명함에 있어 남성성과 여성성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남성집단은 변량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지만 여성집단은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가 약간 다르다. 회귀분석이 변량분석보다 더 정밀하고 검증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남녀할 것 없이 양성성이 개인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수정된 SEI를 가지고 중다비교검증을 한 결과는 남성집단에서는 Original Form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여성집단에서는 Original Form과는 달리 남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남성적 특성과 상관성이 높은 몇 문항을 삭제한 결과로 보인다. 수정된 SEI를 가지

Table 10. Summary of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between Culture, Sex-Role Identity and Gender on Self-Esteem

Source	DF	SS	MS	F	P
Culture(A)	1	8184.90	8184.90	56.88	.001
Sex-role identity(B)	3	7154.46	2384.82	16.57	.001
Gender(C)	1	798.05	798.05	5.55	.019
A×B	3	184.89	61.63	.43	.733
A×C	1	772.59	772.59	5.37	.021
B×C	3	1085.65	361.88	2.52	.058
A×B×C	3	235.42	78.47	.54	.652
Residual	399	57411.56	185.56		
Total	414	75827.52			

고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Original Form의 결과와 동일하다.

3. 韓·美 兩國 大學生의 性役割 正體 感과 自尊感의 比較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元變量分析 결과 두 文化間에 자존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미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점을 한국인의 특성인 겸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한국사회는 謙讓之德을 강조하므로 한국인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기를 다소 쑥스러워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보다 낮은 자존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두 문화간의 차이점을 또한 中庸之道에 의해 해석해 보았다. 충용을 美德으로 아는 한국인들은 5점 또는 7점 척도에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두 文化에서 자존감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은 양극을 피했고 미국인은 단지 하위극단(lower extreme)만을 피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한국인이 보다 낮은 자존감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원변량분석 결과는 또한 文化와 性別間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대학생은 자존감의 남녀차이가 있으나 한국대학생에서는 이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이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여자대학생의 특성으로 앞에서 설명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두 文化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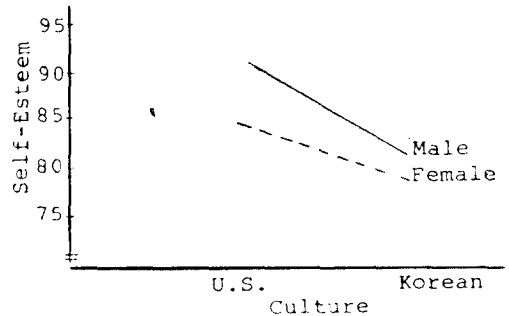


Fig. 1.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ulture and Gender.

이는 이 논문에서 제기된 두가지 연구문제와 직결된다. 즉, 첫번째 研究問題는 자존감을 결정하는데 양성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남성성이 더 중요한가였다. 미국사회에서는 남성성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양성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이를 세 가지로 해석해 보았다. 첫째, Bakan¹⁹⁾에 의하면 現代化와 男性的 特性間에는 正的인 相關關係가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보다 더 현대화된 미국사회에서는 남성적 특성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 둘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과, 셋째, 文化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한국남자집단의 결과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가 미국과 한국 문화에서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만 비교했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 어렵지만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는 모든 문화권에 공통된 것이 아니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個人의 자존감을 설명하는데 양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남성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문화에서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의 관계는 두 文化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남성성이, 한국 사회에서는 양성성이 개인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양성성 이론의 확립이 요청된다.

둘째, 양성성과 개인의 적응력간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서 자존감 이외의 다른 변수, 예를 들면, 자아발달, 도덕성발달, 또는 자아실현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문화에 맞는 성역할정체감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네째, 보다 광범위한 一般化를 위해 대학생 이외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Block, J., Von Der Lippe, A., & Block, J.H. Sex-role and socialization patterns: Some personality concomitants and environmental antece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3, 41, 321~341.
- Mussen, P.H.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masculine sex-typing in 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Monographs*, (2, Whole No. 506), 1961, 75.
- Maccoby, E.E. Sex differences in intellectual functioning. In E.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 Bem, S.L.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7, 45, 196~205.
- Cristall, L., & Dean, R.S. Relationship of sex-role stereotypes and self-actualiz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76, 39, 842.
- Falbo, T. Relationships between sex, sex-role and social influ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77, 2, 62-72.
- Block, J.H. Conceptions of sex roles: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1973, 28, 512~526.
- Jones, W.H., Chernovetz, M.E., & Hansson, R.O. The enigma of androgyny: Differential implications for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8, 46, 298~313.
- Yager, G.G., & Baker, S. *Thoughts on androgyny f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7th, New York, NY., September, 1979).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86 825)
- Mead, M.: *Sex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Morrow, 1935.
- Parsons, T., & Bales, R.F.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 York: Free Press, 1955.
12. Branden, N.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Calif.: Nash Publishing Corporation, 1969.
 13. Maslow, A.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D.E. Hamachek(Ed.), *The self in growth,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Prentice-Hall, 1965.
 14. Freud, S. *New introductory lectures in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1933.
 15. Mischel, W. A social learning view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 In E.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16. Kohlberg, L.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17.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B.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975, 18, 143~158.
 18. Jung, C.G. The relations between the ego and unconscious. In *Collected Works*. Vol. 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First German edition, 1945).
 19. Bakan, D.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1966.
 20. Maracek, J. Social change, positiv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androgyn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79, 3, 241~247.
 21.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4, 42, 155~162.
 22. Bem, S.L., & Lenney, E. Sex 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3, 48~54.
 23. Nevill, D.D. Sex roles and personality correlates. *Human Relations*, 1977, 30, 751~759.
 24. Williams, J.A. Psychological androgyny and mental health. In O. Hartnett, G. Boden & M. Fuller(Eds.), *Sex-role stereotyping*. London: Tavistock, 1979.
 25. Spence, J.T., Helmreich, R., & Stapp, J.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29~39.
 26. Eman, V.A., & Morse, B.W.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gyny and self-esteem, self acceptance and acceptance of 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63rd, Washington, D.C., December, 1977).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53 282)
 27. O'Conner, K., Mann, D.W., & Bardwick, J.M. Androgyny and self-esteem in the upper-middle class: A replication of Sp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8, 46, 1168~1169.
 28. Puglisi, J.T., & Jackson, D.W. Sex 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n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81, 12, 129~139.
 29. Allen-Kee, D.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androgyny to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career-oriented and home-oriented women.(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 1479A.
 30. Orlofsky, J.L. Sex-role orientation, identity formation, and self-esteem in college men and women. *Sex Roles*, 1977, 3, 561~575.
 31. Schiff, E., & Koopman, E.J. The relation-

- ship of women's sex-role identity to self-esteem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1978, 98, 299~305.
32. Harrington, D.M. & Andersen, S.M. *Creative self-concept, masculinity, femininity, and three models of androgyn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88th, Montreal, Quebec, Canada, September, 1980).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94 849)
 33. Antill, J.K., & Cunningham, J.D. Self-esteem as a function of masculinity in both sex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9, 47, 783~785.
 34. Whitley, B.B., & Sweeney, P.D. *Sex role self-concept and attributional sty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53rd, Detroit, MI., 1981).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05 062)
 35. Kelley, J.A., & Worell, J. New formulations of sex roles and androgyn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7, 45, 1101~1115.
 36. Erdwins, C., Small, A., & Gross, R. The relationship of sex role to self-concep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80, 36, 111~115.
 37. Bem, S.L. *Bem Sex-Role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38. Gaudreau, P. Factor analysis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7, 45, 299~302.
 39. Moreland, J.R., Gulanic, N., Montague, E.K., & Harren, V.A.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8, 2, 249~256.
 40. Wakefield, J.A., Jr., Sasek, J., Friedman, A.F., & Bowden, J.D. Androgyny and other measures of masculinity-feminin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6, 44, 766~770.
 41. Walkup, H., & Abbott, R.D. Cross-validation of item selection on the Bem Sex-Role Inventory.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8, 2, 63~71.
 42. Coopersmith, S. *SEI: Self 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43.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1967.
 44. Simon, W.E., Some sociometric evidence for validity of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72, 34, 93-94.
 45. Many, M.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elf-esteem in grades 4 thru 8*.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73.
 46. Matteson, R. Adolescent self-esteem, famil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1974, 86, 35-47.
 47. Tarvis, C., & Offir, C. *The longest war: Sex differences in perspectiv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48. Sappenfield, B., & Harris, C. Self-reported masculinity-femininity as related to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1975, 37, 669~670.
 49. Maccoby, E.E., & Jacklin, C.N.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